

비가시성의 공동체

북한에서 인민과 대중은 분리되는가

남영호*

이 글의 제목인 비가시성의 공동체는 북한이 선포 정치사상적으로 결합되어 있다 하더라도 일상생활의 공유라는 측면에서는 상호접근성이 제한된 불완전한 공동체라는 주장을 함축한다. 조상으로부터 전래되어 오늘날에도 실천되어야 한다고 믿는 민속은 하나의 민족임을 일상적으로 느끼며 민족을 재생산하는 중요한 기제이다. 그러나 북한이 민속에 대해 내건 계급성과 역사주의라는 잣대와 민족문화유산의 계승발전이라는 과제는 처음부터 양립하기 힘들었으며 개별 가족은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세시풍속과 일생의례를 암암리에 수행하였다. 또한 1990년대 중반 이래 확대된 비공식 영역의 각종 사회경제활동은 합법과 불법 사이의 경계에 있으며 타인과 개인생활을 공유하기 힘들게 만들었다. 이러한 현상을 개념화한 것이 비가시성의 공동체로, 여기에서는 당과 지도자의 호출에 응해야 하는 인민과, 호출의 외부에 존재하는 대중이 분리된다. 이러한 분리는 개념적인 것일 뿐 아니라 실제 생활의 구조라는 것이 이 논문의 주장이며, 이 주장이 옳다면 비가시성과 공동체라는 두 단어의 결합은 지속되기 어렵고 불안정하다.

주제어: 북한, 민속, 공동체, 비가시성, 인민, 대중, 세시풍속, 일생의례

* 신한대학교 리나시타교양대학 교수.

1. 서론

이 연구는 북한의 생활문화를 조사·수집하는 과정에서 떠오른 의문에서 비롯되었다. 북한 주민이 일상적으로 실천하는 일생의례와 세시풍속은 왜 제각기 다르며, 다른 이들의 관행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또 자신의 방식이 다른 이들과 차이가 난다는 것을 의식하지 못하는가. 일생의례와 세시풍속은 조상으로부터 전래되어 오늘날에도 계승해야 한다고 여겨지는 관행적 실천이지만, 정치적 환경과 무관하지 않다. 북한은 해방 직후부터 일제 잔재 청산과 민족문화 복원을 전면에 내걸었으며, 근로인민의 진보적 기풍 여부로 무형문화유산의 계승과 단절을 판가름하였다. “문화혁명은 사람들을 낳은 문화의 구속에서 해방하고 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사회주의문화를 창조하여 모든 사람들이 사회주의적인 문화생활을 누리도록 하기 위한 사업”¹⁾이라면, 왜 북한 주민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설과 한식, 단오, 혼례, 상례, 제례를 지내는가. 북한 당국이 여기에 개입해 새로운 인간형을 창출하려 했던 노력의 결과는 무엇인가.

전통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오늘날에도 실천되는 민속으로 일생의례, 세시풍속, 의식주, 여가와 놀이, 민간신앙 따위를 꼽을 수 있으며, 이러한 민속을 공유하는 것은 민족으로서 집단적 동질성을 뒷받침하고 재생산한다. 다른 한편으로, ‘공산주의적 새 인간형’을 창출하는 데에는 전통적 생활문화 전반의 개조가 필수적이었고, 북한도 정권 초기부터 이에 적극 개입하였다. 하지만 일제 잔재를 청산하고 민족문화를

1) 김정일, 『사회주의 건설의 역사적 교훈과 우리 당의 총로선』(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23쪽.

복원한다는 목표와, 봉건유습을 근절하고 계급적 입장과 역사주의적 원칙에 따라 문화유산을 계승 발전한다는 방침은 초기부터 종종 충돌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북한 당국의 민속 개조를 위한 노력이 그 전 시기와는 모순되는 방침을 종종 채택하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²⁾ 이 논문은 북한 당국의 주민 통합과 정치적 동원, 생활 개조 노력이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음을 인정하면서도, ‘비정치적’ 차원에서는 제대로 된 민족공동체의 창출에는 미달하였다고 주장한다.

베네딕트 앤더슨(Benedict Anderson)의 『상상의 공동체(Imagined Communities)』는 19세기 중엽 유럽에서 관이 주도하는 민족주의가 내재적 모순 속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으며 식민지배로부터 해방을 추구한 동남아시아의 정치적 민족주의도 유럽의 관 주도 민족주의의 모형에 큰 영향을 받았다는 역사를 서술한다. 그런데 베네딕트 앤더슨이 일관되게 강조하는 것은, 엘리트들의 이러한 노력은 그 이전 시기 종교 공동체와 왕조국가의 시간관을 ‘동질적이고 공허한 시간(homogeneous and empty time)’이 대체한 뒤에야 가능했다는 점이다.³⁾ 중세 기독교와 이슬람의 종말론적 시간관처럼 현재의 순간에 과거와 미래가 동시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시계와 달력으로 기계적으로 측정되는 시간에 따라, 진리를 담지한 정보 언어가 아닌 지역 언어로 매일 발간되어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이들과 자신을 연결시키는 인쇄자본주의의 힘이 세계를 상상하는 주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사회학자 존 허친슨(John Hutchinson)은, 민족주의를 위로부터 시작되어 단

2) 남영호, “북한민속은 존재하는가: 뜨거운 민족과 일상의 민족,” 『비교문화연구』 제28집 1호(2022).

3) 베네딕트 앤더슨(Benedict Anderson), 『상상의 공동체: 민족주의의 기원과 전파에 대한 성찰』, 윤희숙 옮김(서울: 나남출판사, 2002), 48쪽.

일한 주권을 가진 국민국가를 통합하는 노력으로 정의하는 것은 충분치 못하며, 유럽 근대국가의 형성에는 기근, 이주, 전쟁, 산업화와 같은 각종 ‘비정치적’ 사건이 민족정체성 창출의 주요한 계기였다고 주장한다.⁴⁾

실제로 북한에서 일상생활을 공유하고 전파하는 방송, 신문, 잡지, 영화와 같은 매체의 작동방식, 보편적인 대중교육, 외식, 여행, 산책과 같은 여가시간의 조직, 인민경제에 속해 있음을 실감하기에 미흡한 실제 운용 등의 기제는 주민을 하나의 공동체로 묶어 내기에 불충분하다. 이 논문은 이들 기제 가운데 순례와 영화를 중심으로 살펴보려 한다. 이렇게 북한 주민 사이에서 일상생활의 공유와 전파가 제한적임을 드러내기 위해 제안하는 개념이 ‘비가시성의 공동체(community of invisibility)’이다. 정치학자 제프 웨인트라우브(Jeff Weintraub)는 공적 영역(public sphere) 또는 공공성에는, 공공선을 추구한다는 의미의 집단성(collectivity)뿐 아니라 타인에게 열려 있고 공개되어 있다는 의미를 지닌 “보이는 것(visibility)”이라는 의미도 있다며 이 둘을 구분한다. 이 구분에서 공적 영역의 한 측면인 집단성은 사적 영역의 개별성(individuality)에, 다른 한 측면인 가시성은 사적 영역의 비가시성(invisibility)에 대응한다.⁵⁾

북한에서 집단성이 혁명과 건설이라는 정치적 과제로 묶인 공동체인 인민에 대응한다면, 전통적 풍습이나 현재적 일상의 실천과 전파,

4) John Hutchinson, *Nations as Zones of Conflicts*(London: SAGE, 2005), p.116.

5) Jeff Weintraub, “The Theory and Politics of the Public/Private Distinction,” in Jeff Weintraub and Krishan Kumar(eds.), *Public and Private in Thought and Practice*(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7), pp.1~42.

변용과 같은 일상생활을 공유하는 가시성(visibility)을 기초로 하는 대중을 기초로 하는 공동체라 하기에는 미흡하다. 이 글에서는 비가시성의 공동체라는 개념으로 북한에서 정치적 집단성의 발전과 대비되는 사회성(sociability)의 저발전을 파악하고자 한다. 여기서 사회성이란 가족과 친족, 가까운 친지 이외에도 이웃과 지인 또는 모르는 이와도 일상생활을 공유하며 친밀한 관계를 가리키는 개념이다.

북한에서 민족은 남북한의 구성원뿐 아니라, 비록 다른 지역에 거주하며 경제생활의 공통성이 없더라도 같은 핏줄을 타고 난 해외 동포까지 포괄하는 넓은 개념이다.⁶⁾ 반면 북한이라는 지리적 범위에서 국가는 자신의 성원을 인민대중으로 호출하며, 이를 법적으로는 생활과 투쟁의 단위인 공민으로 규정한다. 이 연구의 취지에 따라 북한을 투쟁과 생활의 공동체로 규정한다면, 투쟁의 공동체의 구성원은 인민이며, 생활의 공동체의 구성원은 대중이 된다. 물론 북한에서 인민대중은 흔히 붙여 쓰는 단어이고 유일체제에서 인민과 대중은 한 몸이어야 하지만, 이 둘은 엄연히 구별된다. 이를테면, 김정은 시대 우리 국가제일주의에서 국가의 호명에 응한 대상은 대중이라기보다는, 사회주의조국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바탕으로 부국강병으로 나아가야 할 인민이다.⁷⁾ 기표가 결정하며 정체성을 규정하는 “상징적” 차원의

6) 이우영·최선경은 1990년대 말 이래, 해외 동포를 ‘조선민족’으로 호명하기 시작한 것은 그 전 시기 제일 동포와 재중 동포를 각각 “재일조선공민”, “중국에 사는 조선사람”과 같은 상대적으로 공식적인 용어를 사용한 것에 비해, 탈영토적 민족관념과 인종적 동일성의 강조를 뜻한다고 분석한다. 이우영·최선경, “조선민족 개념의 형성과 변화,” 『북한연구학회보』 제21권 1호(2017), 15~16쪽.

7) 강혜석은 김정은 시대의 북한은 민족보다 국가를 내세워 통치의 정당성을 확보하며 각종 상징적 차원으로 인민대중을 부국번영의 주체로 호출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여기서 호출에 응할 것으로 기대되는 주체인 ‘인민대중’은 인민으로

인민과, 사회적·상징적 네트워크에 들어가지 못하는 잉여인 “실재적” 차원의 대중을 구분해 접근하자는 것이 이 논문의 주장이다.

이 논문은 먼저 북한에서 일생의례와 세시풍속이 파편적으로 실천되고 있는 사례를 소개한 뒤, 그 배경으로 정치적 목적에 따라 조직되는 ‘순례’와 개인적 차원의 이동인 여행을 살펴보고 북한이 위력적인 선전선동의 수단으로 여기는 대중매체의 하나인 영화를 분석한다. 이어지는 4장에서는 태양에 비유되는 어버이수령이나 광명성으로 불리는 아버지장군이 빛을 보내는 존재임에 반해, 대중 내부는 비가시성의 어두움으로 남아 있는 구조를 분석한다.⁸⁾ 마지막으로 수령의 호출에 응하는 인민과 그 외부에 있는 존재인 대중을 구분하는 의의를 시론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이 논문에서 직접 인용하는 사례들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진행한 북한이탈주민 면담조사와 2019년에 실시한 평양 출신 면담조사에서 얻었다. 전자는 북한 민속 전반에 대한 조사로 연구자 8명이 참가해 연인원 166명을 면담하였고, 후자의 조사에서는 평양의 외식문화를 이해하기 위해 5명을 면담하였다. 면담 자료의 이름은 모두 가명이며 출신 지역은 평양을 제외하면 도까지만 표기하였다.

줄여 불러도 의미의 차이가 없다. 강혜석, “김정은 시대 통치담론의 변화와 ‘국가’의 부상: <김정일애국주의>와 <우리 국가제일주의>를 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 제59권 3호(2019).

- 8) 이러한 접근에 대한 아이디어는 박세진, “북조선 사회의 원자에서 김정일의 자리,” 『북한의 세계-심성: 연구 가능성의 탐색』, 전북대학교 쌀·삶·문명연구원 학술회의(2023.8.25.)에서 비롯되었다.

2. 북한 민속의 파편적 실천

민속(folklore)이라는 단어가 19세기 중엽 유럽에서 고안된 이래, 이것이 소멸 위기에 처한 전근대의 문화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은 문화인지, 또는 현재적 문화인지, 그리고 민속의 주체는 누구인가를 둘러싼 논란이 있었다. 이는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였지만, 특히 소련이나 북한과 같이 새로운 인간형의 창출을 목적의식적으로 추구하는 체제에서는 더욱 복잡한 형태를 띠었다.⁹⁾ 이 글에서는 민속을 민족이라는 사회 단위에서 일상적으로 공유되고 반복적으로 실천되어 “사회적 무의식”을 형성하는 행위로 규정하고자 한다. 이러한 도구적 정의에서 민속은 위로부터 정치적 의미가 부여된 관행일 수 있지만, 이를 일상생활에서 수행하는 행위자는 현재는 다소 변용되었더라도 조상으로부터 전래되었다고 여겨 민족의 구성원이라면 당연히 공유한다고 믿는 행위와 사고, 정서의 주요한 요소이다.¹⁰⁾ 이를테면, 매년 1월 1일은 신년사를 학습하고 동상에 참배하는 사회주의적 의례와 함께 어른들께 인사하며 설날에 맞는 음식을 장만해 같이 나누는 민속 명절이기도 하다.

여기서 파편적 실천이라는 표현은 1) 가족을 비롯한 가까운 관계의 외부에 있는 다른 이들과 자신의 관행이 차이가 나더라도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2) 시기에 따라 변화하는 정권의 방침이 대중 내부에서

9) 여기에 대한 간단한 정리로는 남영호, “소련과 북한의 사례로 보는 사회주의 민속정책,” 『북한의 민속』 강정원 엮음(서울: 민속원, 2020).

10) 모든 민속이 민족을 단위로 실천되는 것은 아니며, 민족의 범주를 넘어서거나 지역이나 계층에 따라 국지적으로 실천되는 민속도 존재하기 마련이기에, 민속을 민족의 사회적 무의식으로 규정하는 것은 이 글의 목적에 따른 도구적인 개념이다.

상이한 방식으로 실천되며, 3) 공식 문헌을 통해 제시된 지침과 대중의 실제 관행 사이에 간극이 존재한다는 세 가지 차원을 지칭한다. 이는 하나의 민족이라 하더라도 지역과 계층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해당되는 의례를 수행한다는 점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대응하는 변이가 아예 존재하지 않거나 다른 이의 실천 방식에 대한 상상이 종종 부정확함을 가리킨다. 아래의 사례들은 다른 실천을 보고 배워 모방하거나 변용할 기회가 부족하기에 변이를 변이로 판단할 기준이 실제 생활에서는 불충분하게 발달되었음을 보여준다.¹¹⁾

결혼식의 사례를 들어 보자.

연구자: 절하는 순서는 없나요?

피면담자: 그것은 없고, 저희 집에서 떠날 때 들어서 친정 부모님께 90도 인사만 하죠. 그것을 사진에 남기죠.

연구자: 큰절은?

피면담자: 안 해요. 인사하는 장면을 꼭 사진에 남겨요.

연구자: 신랑과 신부가 절이나 인사를 하는 것은요?

피면담자: 그건 없었던 것 같아요. 사진은 찍지요.

이금화(평안남도 도시 출신, 1964년생, 여)

연구자: (처가에서) 나오면서 큰절을 했던가요?

피면담자: 네, 큰절. 큰절을 하지요. 큰절은 하는데, 절할 때 이제 여자들이 많이 울지.

11) 여기에 대한 더 자세한 분석은, 남영호, “북한’민속은 존재하는가: 뜨거운 민족과 일상의 민족,” 『비교문화연구』, 제28집 1호(2022).

연구자: 한복하고 치마저고리 입고 신랑하고 같이 절하고 나와서 차 타고요?

피면답자: 네, 차 타고 집에 오죠. 집에서는 떠날 때부터 상 차려 놓고 기다리거든요. 밖에서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나와 있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나와 있어서 바로 절을 하고 들어가요.

이병두(평안남도 도시 출신, 1963년생, 남)

같은 지역 출신으로 1980년대 후반과 1990년대 초반이라는 비슷한 시기에 결혼한 위 두 사람의 경험이 다른 이유 가운데 하나는, 북한 정권이 고난의 행군 이전까지 절이나 제사 같은 의례를 봉건 유습으로 간주해 억눌렀지만 이에 대한 대응은 가정이나 기업소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조상에 대한 의례를 “봉건적인 관습”이라고 배웠지만 “성묘 자체를 못하게 하는 것은 전혀 없었다”(평양 출신, 1982년생, 남)는 발언은 설날에 “집안에서 하는 제사(차례)”조차 “노골적으로 나가서 말을 하지 않는다”(함경북도 출신, 1971년생, 남)는 발언이 엇갈린다.

연구자: (설날에 세배를) 안 하는 집도 있겠네요?

피면답자: 안 하는 집도 있어요. 어떤 개념이냐면 북한이 좀 민속, 전통, 예의 이런 것을 안 가르쳐 주었어요. 저희 부모님이 늘 하는 말이예요. 국가적 차원에서 그리고 교육적 차원에서 부모님 대에서 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한다는 말이 그냥 풍습으로 속설처럼 도는 것이죠.

박희숙(양강도 도시 출신, 1977년생, 여)

그렇기 때문에 전통의례를 지키고자 하는 가정이라면 결혼식이나

장례식 같은 중요한 날에는 이를 잘 아는 사람을 모셔 순서와 절차를 챙기기도 하지만, 다른 가족은 어떠한 방식으로 의례를 행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연구자: 신랑이 신붓집에 왔잖아요. 와서 신부의 부모, 친척들한테 큰 절하는 풍습이 있어요?

피면담자: 없어요.

연구자: 그러면 절하는 풍습도 어느 지방에는 있고, 지방마다 다른 거 아니에요?

피면담자: 안 해요. 지방에도 그건 없어요. 절은 죽은 사람한테나 하는 줄 알았어요. 여기 오니까 설에도 절하니까 절하라 그래, 아무 데나 가도 절받으세요 이러는 거예요. TV에 보니까 군대에 제대돼서 왔다고 해도 절을 하더라고요.

김은경(평양 출신, 1955년생, 여)

이 밖에도 설날 상에 떡국을 차리는지 묻는 질문에 대해서도 자신은 함경도여서 떡국이 아니라 떡을 팔이나 콩, 들깨를 닦아 가루를 내어 문혀 먹었지만 평양 쪽은 먹는다고 하는 이가 있는 반면(함경북도, 탄광 지대, 1968년생, 남), 막상 평양 출신 중에서는 돼지고기 국은 먹어도 떡국은 한 번도 먹지 않았다는 답변(1982년생, 남)도 있고 평양에서 군인으로 근무할 때 만두를 빚어 떡국을 특식으로 준비했다는 답변(1967년생, 남)도 있다.

이와 같은 민속의 파편적 실천의 배경에는 북한 당국의 정책 변화와 변화된 정책을 즉각적으로 수용하지 않는 북한 주민의 태도가 있다. 북한은 1945년 이래 1980년대 중반까지 “민속유산 가운데 진보적

이며 인민적인 것과 낡고 뒤떨어진 것을 엄격히 갈라보아야 한다”¹²⁾는 입장을 강화해 왔다. 특히 1967년 최고인민회의에서 주체사상을 국가의 새로운 지도이념으로 선포한 이래, 민족문화유산 정책이 민족 허무주의적 경향(소련파와 연안파)이거나 복고주의적 경향(갑산파)이었다고 비판하면서, 사회주의 현실에 맞게 계승·발전시켜 노동계급의 계급적 사명에 복무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¹³⁾ 이러한 정책은, 한 면담자의 회고에 따르면, 1967년 조선로동당 4기 15차 전원회의에서 나온 5.25교시¹⁴⁾에 따라 한식, 성묘, 추석 다 없애라는 분위기로 받아들여졌다고 한다(평양 출신, 1945년생, 남).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1986년 김정일이 우리민족제일주의를 주창하면서 미풍양속과 민족문화를 보존하는 것으로 전환된다. 그 배경에는 남한의 국제화, 세계화 전략을 민족적 전통을 훼손하는 것으로 비난하고, 민족정통성은 민족문화유산을 계승해 온 북한이 가진다는 논리가 있다고 한다.¹⁵⁾ 여기에 발맞추어 1988년에는 추석을 공휴일로 지정해 그 전까지 비공식으로 다니던 성묘를 더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했고, 1989년에는 추석, 음력설, 단오, 한식을 4대 명절로 지정하였

12) 김정일, “민속유산을 옹계 계승발전시킬데 대하여(김일성종합대학 학생들과 한 담화, 1963년 7월 5일), 『김정일전집』 6(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14), 392쪽.

13) 정창현, “김정은 시대 북한의 문화유산정책 변화와 남북교류,” 『통일인문학』, 제77집(2019), 368~369쪽.

14) 오경숙은 1967년 5.25교시는 유일사상체계 확립을 통한 정권 강화의 중요한 계기였으며 전체 인민에게도 사상교육과 검토를 강화해 노동계급화, 혁명화를 추구한 중요한 사건이라고 분석한다. 오경숙, “5·25 교시와 유일사상체계 확립: 구술자료를 중심으로,” 『한국동북아논총』, 제32집(2004).

15) 김중근, “북한의 생활문화 속 일생의례의 지속 의의,” 『통일인문학』, 제86집(2021), 16~18쪽.

다가 그 뒤 이 가운데 단오와 한식은 빼고 청명절과 정월대보름을 넣는다. 하지만 다소 혼란스럽기까지 한 이러한 정책의 변화를 대중이 단번에 그대로 따르는 것은 아니었다.

아무튼 우리는 한식에 다 성묘하고 뭘 하고 그걸 꽤 오래 유지했어요. 김일성이 (5.25교시로) 단번에 다 없애지는 못했으니까. 그렇게 하다가 한 1980년대, 90년대에는 거의 다 없어지더라고요. 아, 그런데 김일성이 죽기 전에 다시 추석 해라, 음력설도 원래 우리 설은 음력설이지 않느냐. 죽기 전에 그래도 1980년대 말부터.

장철수(평양 출신, 1945년생, 남)

성묘에 대한 규제의 강도와 변화 시기에 대해서는 면담에서 얻은 구술이나 참고한 문헌에 따라 연구자마다 차이가 있지만, 김종군의 조사에서는 암암리에 행해지던 성묘를 1972년 남북대화 이후 허락했다는 구술이 나온다.¹⁶⁾ 김종군은 또 북한 공식문헌에 대한 분석을 통해 김정일이 우리민족제일주의를 내세우고 민속명절을 부활하며, 민속놀이와 민족옷차림, 민족음식을 장려하였지만 대중이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보았다.¹⁷⁾ 우리의 조사에서도 양력설이 음력설로 대체되었고 2003년 ‘신정을 구정으로 대체할 데에 대한 지시’가 나왔지만, 많은 이들은 여전히 익숙한 양력을 쉰다고 답했다.¹⁸⁾ “나이가

16) 김종군, “탈북민 구술을 통해 본 북한 민속의례의 변화와 계승,” 『한국민속학』, 제62집(2015), 18쪽. 반면 우리의 조사에서는 근무했던 기업소에 따라 차이가 있어도 성묘를 묵인해 주는 분위기였다가 1980년대 말부터는 공식적으로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구술이 많았다.

17) 위의 글, 12~17쪽.

18) “2003년 북한 당국은 ‘신정을 구정으로 대체할 데 대한 지시’를 내렸으며 양력설

많은 웃어른들에게 큰절로 설인사를 하는 것은 전통적인 세배방법”¹⁹⁾ 이라고 하지만, 90년대 이전에는 세배 문화가 없었다는 회상도 있다 (평안남도 출신, 1969년생, 여).

지금까지의 논의를 정리해 보면, 일생의례와 세시풍속을 다양한 변이에도 불구하고 공유하는 것은 민족이라는 공동체를 일상적으로 재생산하는 주요한 기제이지만, 북한에서는 이를 각기 다른 방식으로 실천하거나 실천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타인이 어떻게 의례를 치르는지 잘 알지 못하며 북한 당국의 정책 변화와 이에 대한 대응 또한 가족이나 직장의 분위기에 따라 다른 양상을 띠었다. 공식적인 지침이나 권유와는 다른 방식으로 민속명절을 보내고 혼례, 장례, 제례를 치르는 경우, 이것을 많은 이에게 공개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3. 민족 재생산의 기제들: 순례와 영화를 중심으로

“상상의 공동체”로서의 민족은 자신의 ‘직접적’ 경험을 넘어 시간과 공간, 사람에 대한 상상을 바탕으로 형성된 집단이다. 민족은 개인적으로 아무런 관계없는 많은 사람을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이게 하며, 가본 적 없는 지역까지도 공동체의 영토로 인식하고, 시대적 변천에도 불구하고 과거와 현재, 미래에 걸쳐 자신의 역사가 지속된다는

에 진행하던 국가적 행사를 음력설에 맞춰 재편성했으나 주민들은 지금도 양력 1월 1일 조상에게 차례를 지내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오랫동안 양력설을 설날로 쇠 왔기 때문입니다.” 송홍근, “달력이 북에서 새해 최고 선물로 곱히는 이유?” 『동아일보』, 2020년 1월 20일.

19) “우리 민족의 설명절풍습,” 『로동신문』, 2003년 12월 28일.

믿음에 기초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상상”은 허구나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서로 다른 기원을 가지는 여러 물질적 기제를 통한 실천 위에서 가능하다는 것이 베네딕트 앤더슨의 주장이다. 하지만 마이클 빌릭(Michael Billig)은 자신이 베네딕트 앤더슨의 작업에서 큰 영감을 얻었다고 하면서도 그를 비롯한 민족주의에 대한 탁월한 업적이 민족의 출현에 주목했지, 민족 형성 이후의 과정에는 관심이 없던 점이 『일상적 국민주의(Banal Nationalism)』을 집필한 동기였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내가 민족주의에 대해 정말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었던 이들 위대한 저작에서 무언가 빠져 있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민족주의를 변화를 위한 사회운동과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었지, 이미 확립된 국민국가의 민족주의를 다루지 않았습니다.²⁰⁾

진태원도 빌릭에 동의하면서, 베네딕트 앤더슨의 『상상의 공동체』에서 아쉬운 지점이 바로 이것이라고 지적한다.²¹⁾ 이 글도 국민국가란 역사적 수립이라는 하나의 사건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을 통해 지속적으로 재생산되어야 하는 구성체라고 전제하지만, 이들의 논의가 주로 일상생활에서 잠복되어 있는 ‘정치적’ 기의가 어

20) Klaus Dodds, “An interview with Professor Michael Billig,” *Political Geography*, Vol. 54(2016), p.73.

21) 진태원, “어떤 상상의 공동체? 민족, 국민 그리고 너머,” 『역사비평』, 제96호(2011), 191쪽. 이 글에서 진태원은 nation의 번역어로 민족보다는 국민이 더 적절하다고 주장하는데, 이 주장에 일리가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사회주의체제에서 국민과 공민, 시민의 개념에 대해서는 별도의 논의가 필요하기에 이 글에서는 일단 민족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떻게 국민 또는 민족을 호출하는지에 주목한다는 점에 오히려 베네딕트 앤더슨의 문제의식을 좁히는 것은 아닌가 한다. 즉, 빌릭의 『일상적 국민주의』와 그 뒤의 논의들은²²⁾ 중세적 시공간의 해체, 민족언어의 탄생, 식민지의 행정단위, 센서스, 지도, 박물관과 같은 이질적인 기제들이 복합적으로 작동해 비종교적인 동질성을 형성하며 엘리트가 이끄는 민족주의와 결합하는 역동적인 과정을 보여준 것이 앤더슨의 업적이라는 점을 간과한 것으로 보인다. 앞의 장에서 일생의례와 세시풍속의 파편적 실천을 논한 것도, 민속이 사회심리의 기저로부터 동질성을 지속적으로 재생산하는 주요 요소 가운데 하나이며 동시에 결과이기 때문이다.

여기에서는 민족을 일상적으로 재생산하는 여러 기제 가운데 순례와 대중매체가 북한에서 어떻게 작동하는가를 살펴보려 한다. 베네딕트 앤더슨은 왜 민족됨(nation-ness)이 아메리카 대륙에서 유럽보다 한참 이른 시기에 발전했는가라고 물으면서, 식민 당국의 행정단위 내부를 돌며 근무하던 식민지 출신 관리 및 군인 사이의 형성된 연대감은 마치 종교적 순례에 참가한 사람들 사이의 신성한 교감에 비할 만하다고 서술한다.²³⁾ 이 대목에서 앤더슨은 인류학자 빅터 터너(Victor Turner)의 작업을 인용하는데, 터너는 자신의 고향을 떠나 주변부를 순회한 뒤 다시 돌아오는 종교적 순례의 과정은, 1)분리, 2)주변부 혹은 경계, 3)재통합의 단계를 밟는 통과의례라고 한다.²⁴⁾ 순례자는 강

22) Michael Billig, *Banal Nationalism*(London: Sage, 1995); Michael Skey and Macro Antonsich(eds.), *Everyday Nationhood: Theorising Culture, Identity and Belonging after Banal Nationalism*(London: Palgrave, 2017).

23) 베네딕트 앤더슨, 『상상의 공동체』, 83~89쪽.

24) 빅터 터너, 『인간 사회와 상징행위: 사회적 드라마, 구조, 커뮤니티스』, 강대훈 옮김(서울: 황소걸음, 2018), 254쪽.

도와 도둑 같은 위험, 이동 경비의 부담을 비롯한 각종 어려움을 무릅쓰며 더 큰 세계를 만나고 동료순례자와의 형제애, 집단단식, 신성한 교감을 경험한다. 빅터 터너는 이를 통해 형성되는 사회적 관계를 커뮤니티스(communitas)라고 부르는데 이는 일종의 ‘느낌의 공동체(community of feeling)’로 혈연과 지연을 벗어나 전인격적이며 평등한 관계 속에서 해방을 맛보는 과정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식민지 조선인이 일정한 범위(조선)를 돌며 지역을 직접적으로 느끼고 사람들과 만나고 관계를 형성하는 과정은, 베네딕트 앤더슨이 서술했듯이, 탈종교적 차원에서 순례의 의미를 지니며 민족의식을 고양하는 계기일 수 있다.²⁵⁾ 김일성은 12살 나이인 1923년 3월 16일 아버지 김형직의 뜻에 따라 만주 팔도구에서 평양 만경대까지 “조국과 민족에 대하여 더욱 깊이 알게 하고 강도 일제를 때려부시고 조국을 되찾아야 한다는 큰 뜻을 품게 한 혁명의 길”²⁶⁾을 17일 동안 홀로 걸었다고 한다. 팔도구를 떠나는 날부터 눈보라가 인 데다 천 리 중 500리 이상이 맹수가 출몰하는 험산준령이었지만, 조선 사람들은 비록 나라를 빼앗겼어도 인정과 미풍양속을 간직하고 있음을 알게 해준 일정이었다. 김일성은 훗날 “나에게 있어서는 그 천리길이 조국을 알게 하고 우리 인민을 알게 해준 하나의 큰 학교였다”라고 회상한다.²⁷⁾

그렇다면 1974년 김정일의 지시로 시작되어 김일성이 그 길을 걸은 지 100년이 된 2023년까지 모두 50만 명이 따랐던 ‘배움의 천리길’은

25) 상이한 맥락이기는 하지만, 영화 <모터사이클 다이어리>(2004)는 훗날 체 게바라로 추앙받는 부유한 집안 출신의 아르헨티나 의대생이 남미를 8개월 동안 여행하며 민중이 처한 끔찍한 현실과 고통받는 이들과 연대를 그려낸다.

26) “길이 빛나라 혁명의 천리길이어!” 『로동신문』, 2023년 3월 16일, 1면.

27) 김일성, 『세기와 더불어』 1(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81쪽.

참가자들 사이에서 연대감을 형성하고 영토에 대한 애착심, 조국에 대한 충성심을 복돋웠을까.²⁸⁾ 2023년 조선중앙TV는 ‘배움의 천리길’ 100주년을 맞이하여 400km에 이르는 여정을 동행 취재해 4부작의 특집으로 방송했다. 이 방송은 행사의 취지를 “김일성 대원수님의 숭고한 뜻을 더 깊이 새겨안고 몸과 마음을 튼튼히 다지고 조국의 현실을 직접 체험하는 중요한 계기”라고 설명했다. 여기에서는 험한 산등성이를 넘고 직접 불을 피워 같이 밥을 하며 고개를 넘을 때 서로 돕는 장면과 함께, “대원수님은 홀로 넘으셨으니 힘드셨겠지만 우리들은 서로 돕기 때문에 괜찮다” 또는 “우리 학교가 선두를 놓치지 않겠다”는 인터뷰를 보여준다. ‘전국에서 선발된 모범적인 소년학생들은’ 그룹별로 통일된 복장을 착용하고, 도착하는 도시마다 마중 나온 사람들의 환영을 받았다.²⁹⁾ 조선중앙TV의 해설을 그대로 믿지 않더라도 참가자들 사이에서는 일정한 연대감, 국가에 대한 소속감, 영토에 대한 애착심이 어느 정도 형성되지 않았을까.

그러나 김일성의 천 리 길 여정이 조국과 인민을 알게 해 준 큰 학교였다면, ‘배움의 천리길’은 수령의 발자취를 따라 그 뜻을 되새기는 것이지 다른 지역 인민의 일상생활을 느끼는 기회는 아니라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이러한 순례는 낯선 지역도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영토이며 충성해야 할 공동체는 자신만의 역사를 가진다는 것을 직접적 경험을 통해 느끼는 행위처럼 보이나, 이는 수령과의 관계에서만 정의

28) 공교롭게도 남한에서도 같은 해인 1974년 8월 유네스코한국위원회가 희망찬 조국의 내일을 향하는 젊은 대학인의 행진이라는 취지로 조국순례대행진을 시작했다. https://www.unesco.or.kr/data/unesco_news/view/745/555/page/0?(검색일: 2023년 12월 20일).

29) 조선중앙TV, <https://www.youtube.com/watch?v=ZDfc5HIGfHU>(검색일: 2023년 11월 15일).

된 공동체이며 역사이고 강토이다. 공동체의 성원이라는 인식은 ‘어버 이수령’ 또는 ‘어머니조선’과의 관계에서 강조되지만, 순례에 참가하지 않은 이나 순례 지역 바깥에 사는 이들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는다.

또 ‘배움의 천리길’은 대체로 하나의 인민학교에서 4학년 두세 명을 선발하기에 참가한 사람의 숫자가 일 년에 1만 명을 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다. 선발되지 못한 이가 전하는 참가한 학생의 소감은 “열차가 정전이 안 되고 순조롭게 가면 좋았고, 날씨가 춥고 진창길이면 죽다가 살아 왔다”(평양 출신, 1991년생, 여)는 것이지만, 선발되어 참가한 이들은 대체로 ”가지 못해서 막 그러는 사람들 많았기에 완전히 자랑스럽게 갔다 왔“으며 국가적 행사이기 때문에 대우와 공급이 매우 좋아 자부심을 느꼈다고 한다(평안남도 출신, 1965년생, 여). 하지만 이는 민족주의의 선각자들이 장차 하나로 독립될 국가의 여러 지역을 돌며 식민지의 현실을 체험했더라도 그 이후 일반 대중의 여행, 휴가, 친지방문 등이 영토와 민족을 실감하는 국민의 일상적 재생산의 기제가 되는 것과는 구별된다. 물론 학급 전체 또는 기업소 단위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는 혁명전적지를 답사하기도 하고, 선발된 인원에게는 ‘김일성 주석의 선물관’과 ‘김정일 장군의 선물관’으로 구성된 묘향산 국제 친선전람관을 방문할 기회를 주기도 한다. 그래도 이것은 다수에게 영토의 더 넓은 지역을 경험하거나 다른 이의 생활을 직접 보고 느끼는 계기가 되지 못한다.

소수만 참가하는 순례와 학교나 기업소 단위로 조직되는 답사와는 달리, 북한의 일반 대중이 개인적 용무로 다른 지역을 가는 일이 어렵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고난의 행군 시기인 1996년 평양에서 치른 약혼식을 치른 한 여성은 200리 떨어진 지역에 거주하는 시어머니

가 열차가 제대로 운행되지 않아 참석하지 못했으며, 평안남도의 친정에서 결혼식을 치르고 평양으로 가는 데 잦은 정전으로 5일이나 걸렸으며 열차에서 혼수를 도둑맞았다고 했다(평안남도 출신, 1969년생, 여). 24년간 군인으로 복무한 한 남성은 직업상 북한 전역을 돌아다녔지만, 2006년 탈북할 때까지 개인적 용무로 통행증을 발급받기는 매우 힘들었다고 구술한다(함경북도 출신, 1950년생, 남).

최근에는 열차보다는 요금이 비싸지만 ‘서비차’(서비스차의 준말로 개인이 불법으로 영업하는 차량)를 이용해 통행증 없이 도(道) 경계 안이라면 국경 지역이나 평양을 제외한 지역을 다니기는 수월해졌다. 또 뇌물을 주고 통행증을 발급받거나, 미리 보위부 해당 부서와 짜고 통행증 없이 통과하기도 한다. 경제적 격차가 확대됨에 따라 여유 있는 층은 기업소 등에서 자동차를 빌리거나 ‘서비차’를 이용해 도 경계를 넘어 먼 지역으로 이동해 휴가를 즐기기도 한다.³⁰⁾ 하지만 이러한 방식으로 개인적으로 다른 지역을 경험하며 그곳 사람들을 접촉하고 호텔 등의 공식 숙박업소를 이용하는 기회는 계층적으로 한정되어 있다.³¹⁾

대중매체는 만난 적 없는 다른 지역의 사람들이 ‘나’와 같은 방식으로 일생의례, 세시풍속, 의식주, 여가생활을 영위하거나, 설령 그 방식

30) 조정아·최은영, 『평양과 해산, 두 도시 이야기: 북한 주민의 삶의 공간』(서울: 통일연구원, 2017), 150쪽.

31) 외부인의 북한 관광이 아니라 북한 주민의 관광에 대한 정보나 조사연구는 드물다. 오래 되기는 했으나 2006년 발표된 한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은 대체로 관광을 해외관광으로, 국내 여행이나 관광은 단체로 가는 답사나 견학으로 이해한다고 한다. 설문조사에서는 북한 이탈 전 3년 내에 여행이나 관광을 한 경험이 없는 응답이 거의 90%에 달했고, 3년 내에 단체관광에 참가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절반이 넘었다. 김성섭·한학진·이혜린, “북한주민들의 관광과 여가활동에 대한 이해,” 『관광·레저연구』, 제18권 제4호(2006), 390쪽.

이 나와 다르더라도 하나의 변이로 이해하도록 하는 주요한 기제 가운데 하나이다. 우리는 흔히 지역적 풍습이나 여러 사회적 지위와 직업의 일상생활을 텔레비전의 각종 프로그램, 드라마, 영화, 문학작품, 그리고 최근에는 온라인 매체를 통해 접하며 (실제와는 다를 수 있지만) 이해하고 상상하거나 비판하며 모방한다. 하지만 북한의 여러 매체는 사상의 통일성을 담보하고 여러 갈등을 극복해 이상적인 인간형으로 나아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해도, 세밀한 묘사를 통해 다양한 생활방식을 드러내거나 전형적인 일상생활의 배경인 구체적 실제 그 자체를 제시하지는 않는다.

이들테면, 1993년 제작된 영화 <도시처녀 시집와요>는 평양의 재단 공장 사람들이 모내기를 도와주러 농촌으로 왔다가 인정받는 재단사 리향이 농촌의 기계화와 과학화를 위해 노력하는 남주인공 성식과 오해와 갈등을 넘어서 결혼하게 된다는 줄거리이다. 개봉 당시 김일성이 극찬했으며 대중적 인기를 끌었고, 2022년 1월에는 조선중앙TV에서 특집으로 이 영화를 소개하고 재방송한 데에는 이 영화가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은 사회주의 농촌문제를 잘 짚었기 때문이라고 한다.³²⁾ 이 작품은 도농격차, 메탄가스문제, 오리농업, 태양열온실문제 등을 잘 다루었다지만, 이를 끌고 가는 핵심은 결국 성식과 리향이라는 두 남녀 주인공의 연애와 결혼이다.

하지만 영화의 대미를 장식하는 둘의 결혼에서도 혼례 자체는 보이지 않는다. 평양의 여주인공 집에서(아마도 집안에서 혼례를 마친), 윗주머니에 꽃을 꼽은 양복 차림의 신랑과 머리에 화관을 두른 한복 차림의

32) ““도시처녀 시집와요” 30년만의 역주행, 그 이유는?” MBC 뉴스, 2022년 1월 7일, https://imnews.imbc.com/newszoomin/newsinsight/6330781_29123.html(검색일: 2023년 11월 10일).

신부가 아파트 건물 밖으로 나서자, 양쪽으로 늘어선 이웃이 종이꽃을 뿌리며 축하해 준다. 꽃으로 장식한 버스가 하객을 싣고 농촌에 도착 하자 마찬가지로 그곳의 주민들이 기다리다 환영하더니 혼례는 보여 주지 않은 채, 일상복으로 갈아입고 과수원을 둘러보는 신랑과 신부, 그리고 풍요로운 농촌의 일상을 비추는 것으로 영화는 끝난다. 이 영화에서는 신랑과 신부의 결혼식 당일의 옷차림 이외에는, 의례의 구체적인 진행 과정이나 음식, 예물, 참석자의 범위 어느 것도 나오지 않는다.

〈사랑의 노래〉는 평양산원을 배경으로 신출내기 간호원 옥주와 아이스하키 선수 현우 사이의 연애를 다룬 1982년 영화이다. 평양산원은 1980년 개원해 2,000여 병상을 갖춘 아시아 최대의 산부인과 종합 병원이다. 이 영화에서는 당시 북한이 자랑하는 평양산원의 각종 시설 뿐 아니라, 교통수단, 주거용 건물과 기념물, 놀이공원, 식당, 미용실 등 평양 시내 곳곳뿐 아니라 농촌 가옥의 내부구조도 볼 수 있다. 또 대동강을 운항하는 유람선의 승객이나, 승용차를 운전하는 남주인공 아버지, 간호원과 간호장 사이의 갈등과 해소, 간호원이 신생아를 돌보는 노력이 묘사되지만, 출산 이후 입원해 있는 동안과 퇴원 이후 가정 내부에서 산모가 어떻게 몸조리를 하는지, 신생아를 가족과 산모가 어떻게 돌보는지는 나오지 않는다.

1973년부터 1988년까지 10여 편의 시리즈로 가족과 이웃의 문제를 코미디로 접근한 영화 〈우리집 문제〉 가운데 ‘우리웃집 문제’는 자식의 결혼을 통해 당 간부와 지도층의 생활과 사상을 비판하고 있지만 막상 결혼식 장면은 나오지 않고 식을 마친 신랑과 신부가 승용차에 타는 장면으로 넘어간다. 물론 『우리집 문제』 시리즈에서는 아파트의 내부구조나 살림살이가 잘 보이기는 하나, 주인공의 가정을 방문한 친

정어머니의 말처럼, 당시 북한의 전형적인 형편이라기보다는 궁궐처럼 꾸미고 사는 집안의 내부이며, 앞에서 다른 일생의례와 세시풍속을 실제로 어떻게 치르는지 볼 수 있는 기회는 제공하지 않는다.

반면, 2016년 개봉한 <우리집 이야기>는 돌보는 부모 없는 세 남매를 돕는 주인공이 오해와 갈등을 넘어서 이들과 한 가족으로 산다는 줄거리의 영화이다. 이 영화는 선악으로 나뉘지 않는 인물 사이의 갈등, 북한 중소도시(남포 근교의 강선)의 학교생활, 가정생활, 의식주를 세밀하게 묘사한다. 하지만 최근 ‘민족료리’를 내세우는 당국의 정책을 반영하는 듯한 급양관리소의 요리경연대회 장면에서도 완성된 음식은 한 번 나올 뿐이며, 집안을 배경으로 하는 갈등과 화해, 대화, 일상이 주된 내용이지만 상처림은 한 번 등장할 뿐이다. 이렇게 북한의 많은 영화들은 일상과 명절의 음식, 설이나 추석 같은 명절의 의례, 혼례, 장례, 제례 같은 집안의 중요한 행사를 자세히 보여주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것들을 생략하는 것은 김정일의 『영화예술론』이 “생활자체도 생동하게 그려 내지 못”하고 “사건본위로 생활을 그리며 생활의 결과만 제시”³³⁾하는 데 그친다고 비판했던 대상과는 애초부터 무관한 차원이라고 보아야 하지 않을까. 게다가 수령의 혁명활동을 수록한 기록영화인 ‘영화문헌’을 집단적으로 관람하는 일은 의무이지만, 실생활을 바탕으로 했거나 전 대중에게 인기가 있을 만한 영화는 유료 관람인 데다 거주 지역에서 멀리 떨어진 영화관에서 상영하기도 하고 전기가 종종 끊겨 관람 일정을 잡기도 어렵다.

『로동신문』이나 『천리마』, 『조선녀성』과 같은 공식문헌이 보도하는 관혼상제와 명절풍속은 인민대중의 실생활이 아니라 지시와 권유가

33) 김정일, 『영화예술론』(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73), 5~7쪽.

대부분이다. 혼례와 제례를 간소하게 치르라는 것은 1960년대 이래 지금까지도 반복되는 논설의 주제이지만, 막상 소박하고 모범적인 결혼식을 다루는 기사는 어떠한 점에서 소박하고 인상 깊은 결혼식인지 묘사하지 않는다.³⁴⁾ 여성의 옷차림에 대해서, 『조선녀성』은 “우리 민족옷인 조선옷은 보기도 좋고 입기도 편리합니다. 특히 여성들이 입는 치마저고리는 세상에 자랑할만합니다”라는 김정일의 발언을 인용하며 민족옷 착용을 권장했다.³⁵⁾ 하지만 10년이 채 지나지 않아 같은 잡지에 실린 기사는 여름철에는 다양한 옷차림을 해야 한다며, “여름철에는 와이샤쓰나 짧은 샤쯔에 바지나 치마를 받쳐입는 것이 단정하면서도 활동적이다. 여름양복, 나뉘옷, 달린옷 등을 조화를 맞추어 입기도 한다”고 적고 있다³⁶⁾ 이렇듯 공식 문헌의 지시와 권유도 정책의 변화에 따라 그때그때 변화한다.

4. 비가시성의 공동체

지금까지의 논의는 북한에서 사적 영역이 두 가지의 다른 차원으로 구분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첫째로 공공에 개방되지 않고 숨겨져 있는

34) 박옥경, “소박하면서도 인상깊은 결혼식,” 『로동신문』, 2008년 12월 2일, 4면. 이 기사에서 이 결혼식이 소박하다고 묘사한 유일한 구절은, “비록 결혼식장에 모여온 사람들은 가족, 친척들을 포함하여 몇 명안팎이고 결혼상도 활짝 핀 꽃송이들을 기본으로 소박하게 차리였지만 단란한 분위기속에서 신랑, 신부의 앞날을 축복해준 그날의 결혼식은 가족들에게도, 마을사람들에게도 큰 여운을 안겨주었다”이다.

35) “조선치마저고리,” 『조선녀성』, 5월호(1997), 39쪽.

36) 리정이, “여름철 옷차림을 다양하게 하자,” 『조선녀성』, 6월호(2006), 44쪽.

영역으로 전통과 관련된 풍습뿐 아니라 국가나 당의 지침과 권유에 벗어나 있는 일상생활이다. 둘째는 헌법 제 63조의 '하나를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 원칙에 복무해야 하는 개인 생활로, 이를테면 '배움의 천리길' 참가, 영화문헌 관람, 생활총화 같은 활동이다. 물론 실제에서 이 둘은 엄격하게 구별되지 않고 그 경계가 시기에 따라 변화하거나 중첩된다. 개념적으로는 전자에 대응하는 공적 영역을 열려 있으며 보이고 접근 가능한 영역으로 후자를 공공선(인민 전체의 이익)으로 나누어 볼 수 있고, 후자에서 개인생활은 공동생활에 포섭된다.³⁷⁾ 유일사상체계가 완전하게 작동한다면 이러한 구별은 의미 없지만, 지금까지 서술한 탈북민의 구술과 공식 자료에 따르면 1960년대 말 이래에도 유일사상체계가 개인의 생활로 완전히 침투한 것은 아니며, 비공식경제가 확장되고 뇌물 고이기가 드물지 않은 현재의 국면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타인의 노동력을 고용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지만 평양의 부유한 층은 가사도우미를 고용해 장보기까지 시키고 지방 도시에서도 개인과 외가 성행하며 합법과 불법의 경계에서 외화벌이에 나서기도 한다.³⁸⁾ 또 정상적으로 배급을 지급하지 못하는 기업소에 돈을 내 출근과 생활총화, 정치학습을 면제받고 그 대신 시장에서 개인적으로 돈을 벌며, 국가가 독점했던 영상과 문헌을 외국에서 들여오기도 하고 개인이 제작해 유통시킨다. 장사나 고리대금업, 밀수로 부를 축적한 돈주는

37) Jeff Weintraub, "The Theory and Politics of the Public/Private Distinction," p.5 참고.

38) 조정아·최은영, 『평양과 혜산, 두 도시 이야기: 북한 주민의 삶의 공간』, 50~53쪽(가사도우미를 쓰는 일은 남편에게도 비밀로 하기도 한다), 140~147쪽(학교에 뇌물을 제공해 학적을 유지하고 학업은 전적으로 사교육에 의지하는 경우도 있다).

국가기관의 명의를 빌려 합영으로 식당을 차리고, 칸막이가 쳐진 합영제 식당을 찾은 고객은 공식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서비스를 요구하기도 한다(평양 출신, 1958년생, 남). 하지만 김정은 체제 이후 국경경비업무를 국가안전보위부가 맡으면서 개인적 차원의 밀수나 국경 일대의 중국 휴대전화 사용이 힘들어지고 외부 콘텐츠의 유통이 더욱 철저해졌다.³⁹⁾ 타인에게 주목받을 정도로 자신의 부가 두드러지는 것은 당국의 감시 대상이며 위험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공에 드러나면 곤란한 사적 영역과 공공에 복무해야 하는 사적 영역은 경계가 비록 유동적이라도 구분되어야 한다. 이 결과 가운데 하나는 개인생활의 일정 영역을 차단하는 비가시성의 공동체(community of invisibility)의 재창출이다.

물론 시장화의 진전은 가시성을 촉진하기도 한다. 김정은 정권이 강조하는 문화정서생활기지 확충에 따라 건설된 극장, 문화회관, 체육관, 편의봉사시설, 공원, 유원지, 명승지는 다른 이들의 행위 양식을 보고 모방하거나 변용하거나 비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결혼식을 신붓집과 신랑집에서 치르는 대신, 식당을 빌려 사회자가 많은 신랑 신부의 하객 앞에서 진행하는 방식은 중요한 일생의례의 대중적 공유를 의미한다. 그러나 '민족료리'의 보급 또는 새로운 해외 음식의 소개까지 포함한 최근 소비생활의 변화는 가시성의 확대이지만 계층적 한계에 부딪힌다. 이러한 맥락에서 비가시성의 공동체는 몇몇 영역

39) 2021년 6월 18일 제작된 북한의 영상물 “우리 인민의 고상한 미풍량속과 사회주의생활양식에 배치되는 이색적인 결혼식록화편집물제작행위들을 철저히 배격하자”는 단속에 적발된 한 결혼식 녹화 편집물에 대해 “우리식이 아닌 이색적인 옷차림과 머리단장을 버져시 하고”, “야외에서 처녀를 껴안고 누워있는 동작도 서슴없이 연기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월간조선TV, <https://www.youtube.com/watch?v=1geJpL-naxE&t=10s>.

에서 가시성이 확장되는 아이러니를 담고 가는 과정이기도 하다.

제프 웨인트라우브는 시민의 정치 참여를 통해 민주주의를 시작한 고대 그리스의 폴리스를 문명의 발상지로 여기는 통념에 대해, 그와 비슷한 시기 전제정이 지배하는 고대 도시 바빌론은 정치적 공동체는 아니었으나 다채로움과 활력이 넘치고 차이가 인정되는 또 다른 문명의 시작이었다고 주장한다.⁴⁰⁾ 바빌론의 다수 사람들은 정치와 무관한 영역에서 자신이 하고 싶은 바를 할 수 있었고, 개인의 생활은 타인에게 보이고 열려 있으며 공유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공동체를 형성했다. 이러한 논의는 고대 그리스의 도시국가는 민주주의에 기반한 공공선을 추구한 반면, 바빌론은 전제정이 지배하기는 했으나 그리스와는 다른 차원의 공적 영역이 존재했음을 대조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북한은 고대 그리스나 바빌론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정치적 공동체이다. 이 글에서는 제프 웨인트라우브의 구별을 비틀어 정치적 차원에서는 고대 그리스와 다른 방식으로 결속되어 있을지 모르나, 일상성의 차원에서는 미발달한 공동체로서 북한의 특징을 집약하기 위해 비가시성의 공동체라는 개념을 제안한다.

인류학자 정병호는 2005년 평양에서 〈아리랑공연〉을 관람한 경험을 다음과 같이 서술한다.

경기장은 빛과 소리와 열기로 가득했다. 공연이 시작되기 전부터 각종 조명이 환하게 밝혀져 있었고, 최종점검을 하는지 형형색색으로 움직이기도 했다. 네온사인과 가로등 불빛이 없는 평양시내의 밤과 너무

40) Jeff Weintraub, "The Theory and Politics of the Public/Private Distinction," p.26.

대조적이라 눈부셨다. 북한 사람들은 더욱 그렇게 느꼈을 것이다.⁴¹⁾

특히나 공연이 끝나고 자신은 남한에서 온 일행 중 한 명으로 버스에 타서, 찬란한 빛의 세계에서 나와 어둠 속에서 걸어가는 북한의 관중을 바라보니 묘한 느낌이 들었다는 것이다.⁴²⁾ 이러한 빛과 어둠의 대비는 상징적이면서 실재적이다. 정치사상적으로 호명된 인민은 빛의 세계로 나와 서로를 확인하며 공연(= 수령)을 바라보고 상상의 공동체인 민족의 일원임을 다시 확인하지만, 그 바깥에는 서로를 인지할 수 없는 어두운 외부인 대중의 세계가 존재한다. 이렇게 공동체로 묶여 있으면서도 공동체의 규범과 연대의 외부에 존재해야 하는 역설을 표현하고자 하는 개념이 비가시성의 공동체이다.

박세진은 삶과 운명의 태양인 어버이 수령 김일성과 밝은 빛을 내는 광명성으로 지칭되는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의 관계는 스스로 빛을 발사하는 항성과 그 둘레를 돌며 빛을 받는 행성의 비유라는 점에 주목한다. 행성인 광명성은 항성인 태양 가까이에서 커다란 면적으로 많은 빛을 받아 반사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태양의 자리인 수령을 결코 대체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김일성이 김정일에게 권력을 넘긴 것은 세습이 아니라 굳이 표현하자면 대리청정이라고 한다.⁴³⁾ 이 구조에서는 태양으로부터 빛을 받아야 수령이나 지도자에게 보이고 그를 볼 수 있으며 서로에게도 보이는 인민이 되지만, 인민에 가려진 그림자로 호명되지 않은 대중도 동시에 만들어진다.

인민은 수령이나 영도자, 지도자의 호명에 응해 "나라를 이루고 사

41) 정병호, 『고난과 웃음의 나라』(파주: 창비, 2020), 175쪽.

42) 정병호와의 개인적 대화(2021년).

43) 박세진, "북조선 사회의 원자에서 김정일의 자리".

회와 역사를 발전시켜나가는데서 주체로 되는 사람들⁴⁴⁾인 반면, 대중은 “광범한 군중⁴⁵⁾”으로, 정의되지 않은 잉여의 존재이다. 여기서 인민은 사적 영역도 전체에 바칠 수 있는 공동체의 주체가 되어 법적 실체인 공민으로 인정되지만, 대중은 서로의 개인 생활을 잘 알지 못하고 접근이 제한되는 비가시성의 영역에 머무른다. 비가시성의 공동체에서 인민과 대중은 이렇게 역설적으로 결합한다. 만약 자신의 존재 조건을 인민으로 상상하는 개개인이 호명에 응하기 전의 상태는 무엇이었는가를 묻는다면 계급이 소멸되어도 영원할 민족의 일원이었다고 답을 해야 하겠지만, 이는 이미 호명에 답한 인민이 주는 사후적 설명이 될 것이다.⁴⁶⁾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선군정치를 펼치신 때로부터 10년, 그 령도기간에 그이께서 인민군대에 대한 현지도 회수는 580회이고, 그 로정은 12만 6천km에 이르고 있다⁴⁷⁾”는 서술에서는, 이동의 자유가 제한된 대중과 지도자의 관계가 비대칭적으로 여겨질 수 있으나, 인민(대중)의 의사를 체현한 최고뇌수가 수령이라면 비대칭적일 수 없다. 왜냐하면 수령과 당, 인민대중은 하나의 생명으로 결합된 운명공동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구조에서 (인민)대중은 일상생활을 공유하거나 그렇지 않거나 타인의 일상생활을 부러워하거나 비난하거나. 가려져 있는 비가시성의 공동체에 머물 뿐이다.

44) 『조선말대사건』 2(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2), 1669쪽.

45) 『조선말대사건』 1, 884쪽.

46) 루이 알튀세, “이데올로기와 이데올로기적 국가장치,” 『아미앵에서의 주장』, 김동수 옮김(서울: 솔출판사, 1991) 참조.

47) 송승환, 『우리 민족제일주의와 조국통일』(평양: 평양출판사, 2004), 33쪽.

5. 결론

공동체라는 단어를 어떻게 정의하든, 공동체는 공적 영역을 전제로 하기 마련이다. 이 글은 제프 웨인트라우브의 논의를 빌려 공적 영역을 고대 그리스의 아테네가 역사적 전형이 되는 공공선을 위한 정치적 참여라는 의미와, 고대 바빌론에서 보이는 다른 이들과의 지속적 관계와 활기, 자발성, 사회성(socialibility)이라는 의미로 나누어 보았다. 북한의 인민대중이 정치적으로는 공동체로 결합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직접적 접촉이 없는 타인과 일상생활을 공유하고 있기에 스스로를 공동체의 일원으로 상상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이 글의 주장이다. 공동체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부를 때 그 호명에 응답하는 이들은 주체로서의 인민이 되고 법적으로 국민의 자격을 얻지만, 전존재(인민대중)가 응답하는 것이 아니기에 잉여인 대중이 발생한다. 여기서 잉여로 남겨진 대중의 개인생활은 불투명한 비가시성의 영역으로 국가의 방침과 권유에 따르기도 하고 우회하기도 한다. 이 글에서는 비가시성의 영역으로 세시풍속과 일생의례, 비공식적 사회경제활동을 들어 비가시성이 재생산되는 배경으로 북한의 순례와 대중매체, 공식문헌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어버이수령’이나 ‘어머니조선’ 또는 당(그래서 이들의 법적 실체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인민대중을 호명했지만, 호명에 응하기 전에 이들은 누구인가라는 질문은 알튀세가 목적론적이라고 비판한 것처럼 의미 없다. 왜냐하면 자신은 호명에 응한 역사의 주체인 인민대중이기 때문에 민족이라는 공동체의 성원임을 자각할 수 있었다고 답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글이 제시한 개념인 비가시성의 공동체는 사실 비가시성과 공동체의 불안정한 결합이다. 공동체는 어떠한 방식으로든

이질적인 개인이나 집단과도 일정한 수준의 친밀성을 확보해야 지속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이전까지 일체의 이질적 요소를 배격하고 유일사상체계가 달성되는 것처럼 보이던 시기는, 오히려 비가시성의 공동체가 변용되어 재생산되는 훗날을 보이지 않게 준비하는 불안정한 과정은 아니었을까.

■ 접수: 3월 6일 / 수정: 4월 12일 / 채택: 4월 15일

참고문헌

1. 북한 자료

1) 단행본

김일성, 『세기와 더불어』 1(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_____, 『사회주의 건설의 역사적 교훈과 우리 당의 총로선』(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김정은, 『영화예술론』(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73),

송승환, 『우리 민족제일주의와 조국통일』(평양: 평양출판사, 2004).

『조선말대사전』 1, 2(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2).

3) 논문

김일성, “민속유산을 옹계 계승발전시키는데 대하여(김일성종합대학 학생들과 한 담화, 1963년 7월 5일),” 『김정일전집』 6(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14).

리정이, “여름철 옷차림을 다양하게 하자,” 『조선녀성』, 2006년 6월호.

“조선치마저고리,” 『조선녀성』, 1997년 5월호.

3) 신문

“길이 빛나라 혁명의 천리길이여!” 『로동신문』, 2023년 3월 16일, 1면.

박옥경, “소박하면서도 인상깊은 결혼식,” 『로동신문』, 2008년 12월 2일, 4면.

“우리 민족의 설명절풍습,” 『로동신문』, 2003년 12월 28일.

4) 기타 자료

조선중앙TV, <https://www.youtube.com/watch?v=ZDfc5HIGfHU>(검색일: 2023년 11월 15일).

2. 국내 자료

1) 단행본

앤더슨, 베네딕트(Benedict Anderson), 『상상의 공동체: 민족주의의 기원과 전파에 대한 성찰』, 윤형숙 옮김(서울: 나남출판사, 2002).

정병호, 『고난과 웃음의 나라』(파주: 창비, 2020)

조정아·최은영, 『평양과 혜산, 두 도시 이야기: 북한 주민의 삶의 공간』(서울: 통일연구원, 2017).

터너, 빅터(Victor Turner), 『인간 사회와 상징행위: 사회적 드라마, 구조, 커뮤니티스』, 강대훈 옮김(서울: 황소걸음, 2018).

2) 단행본

강해석, “김정은 시대 통치담론의 변화와 ‘국가’의 부상: <김정일애국주의>와 <우리 국가제일주의>를 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 제59권 3호(2019).

김성섭·한학진·이혜린, “북한주민들의 관광과 여가활동에 대한 이해,” 『관광·레저연구』 제18권 제4호(2006).

김중군, “북한의 생활문화 속 일생의례의 지속 의지,” 『통일인문학』 제86집(2021),
_____, “탈북민 구술을 통해 본 북한 민속의례의 변화와 계승,” 『한국민속학』 제62집(2015).

남영호, “‘북한’ 민속은 존재하는가: 뜨거운 민족과 일상의 민족,” 『비교문화연구』, 제28집 1호(2022).

_____, “소련과 북한의 사례로 보는 사회주의 민속정책,” 강정원 엮음, 『북한의 민속』(서울: 민속원, 2020).

알튀세, 루이(Louis Althusser), “이데올로기와 이데올로기적 국가장치,” 김동수 옮김, 『아미앵에서의 주장』(서울: 솔출판사, 1991).

박세진, “북조선 사회의 원자에서 김정일의 자리,” 『북한의 세계-심성: 연구 가능성의 탐색』, 전북대학교 쌀·삶·문명연구원 학술회의(2023.8.25.).

오경숙, “5·25 교시와 유일사상체계 확립: 구술자료를 중심으로,” 『한국동북아논총』 제32집(2004).

이우영·최선경, “‘조선민족’ 개념의 형성과 변화,” 『북한연구학회보』, 제21권 1호

(2017).

진태원, “어떤 상상의 공동체? 민족, 국민 그리고 너머,” 『역사비평』, 제96호(2011).

3) 신문

송홍근, “달력이 북에서 새해 최고 선물로 꼽히는 이유?” 『동아일보』, 2020년 1월 20일.

4) 기타 자료

월간조선TV, <https://www.youtube.com/watch?v=1geJpL-naxE&t=10s>(검색일: 2023년 12월 20일).

유네스코한국위원회, https://www.unesco.or.kr/data/unesco_news/view/745/555/page/0?(검색일: 2023년 12월 21일).

MBC 뉴스, 2022년 1월 7일, “도시처녀 시집와요” 30년만의 역주행, 그 이유는?” https://imnews.imbc.com/newszoomin/newsinsight/6330781_29123.html(검색일: 2023년 11월 10일).

3. 국외 자료

1) 단행본

Billig, Michael, *Banal Nationalism*(London: Sage, 1995).

Hutchinson, John, *Nations as Zones of Conflicts*(London: SAGE, 2005).

Skey, Michael and Macro Antonsich(eds.), *Everyday Nationhood: Theorising Culture, Identity and Belonging after Banal Nationalism*(London: Palgrave, 2017).

2) 논문

Dodds, Klaus, “An interview with Professor Michael Billig,” *Political Geography*, Vol.54(2016).

Weintraub, Jeff, “The Theory and Politics of the Public/Private Distinction,” in Jeff Weintraub and Krishan Kumar(eds.), *Public and Private in Thought and Practice*(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7).

Community of Invisibility

Might the People and the Masses be Separate in North Korea?

Nam, Young Ho (Shinhan University)

North Korea is an incompletely constructed community in terms of shared everyday life, even if it might be strongly politically united. Inherited from the common forebears and practiced collectively today, folklore is one powerful mechanism which enables the continuous reproduction of a nation. However, from the very beginning it is difficult to see that the criterion of class character and historicalness goes hand and hand with the development of national culture and heritage, and individual households have practiced rites of life and seasonal customs on their own. Moreover, the spread of the informal economy in various spheres since the late 1990s has made it harder for North Korean people to share their own person lives with others, as their activities straddle the border of being legitimate and illegitimate. The concept of community of invisibility is suggested, in which people who have responded to the call of the Party and the Leader are separate

from the masses whose response remains partly unanswered. The separation of the two is not only conceptual but also practical, and as such the combination of invisibility and community might not be sustainable.

Keywords: North Korea, folklore, community, invisibility, people, masses, seasonal customs, rites of life